

‘全谷里出土 주먹도끼 류石器의 性格에 對하여’

裴 基 同*

차 례

- 一. 緒 言
- 二. 주먹도끼의 개념·관련석기群 그리고 分析의 方法
- 三. 石器의 分析
- 四. 全谷里의 주먹도끼류石器와 東아시아地域의 舊石器文化

一. 서 언

동아시아지역에서 舊石器가 最初로 發見된 것은 1920年이었다.¹⁾ 그후 중국에서는 계속적인 유적의 증가로 1982년 현재 265개소에서 구석기 관계 유물이 확인 되었고 보고된 유적만도 104개소에 달하고 있다.²⁾

日本은 明治時代부터 구석기가 제시되기 始作하였으나 1949年 群馬縣 岩宿유적이 發見되고 난 후 本格的인 연구가 始作되어 현재까지 수많은 中期 또는 後期구석기에 屬하는 유적이 發見되었다.³⁾

우리나라에서 舊石器文化가 最初로 확인된 것은 1930년대 후반 森·直良等의 日人學者에 依해 咸北 동관진유적이 최초로지만 1960年代에는 石壯里가 發見된 以後 많은 지점에서 舊石器가 확인 되었고 발굴 되었으며 또한 보고된 것만도 13개소이다.⁴⁾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韓·中·日 모두 구석기시대에 관한 유적이나 연구성과가 대단한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비우스의 한탄섞인 비평처럼 아직까지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石核—박편石器文化라는 궁극적인 문제가 제시된 以來 수 십년간 별로 획기적인 진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⁵⁾

이러한 것의 원인으로는 물론 획기적인 유적—文化傳統이 확연히 區別 될만한—이 發見되지 않았음이 根本的인 制約이었겠지만 이 地域의 舊石器文化研究의 方法論上의 問題가 研究에 成果를 거

* 서울大 博物館

1) Licent와 Teilhard가 20년 初오르도스 地方에서 舊石器遺跡 Sjara-osso-gol과 Shui-tung-kou를 發見하였고 1921년에 Anderson과 Zdansky에 의해 周口點 1地點이 發見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용골을 확인한 것은 1903년에 Max Schlosser임.

2) 賈蘭坡. 1982. 6. ‘中國における 舊石器時他研究の 現狀’ 『古代文化』 Vol.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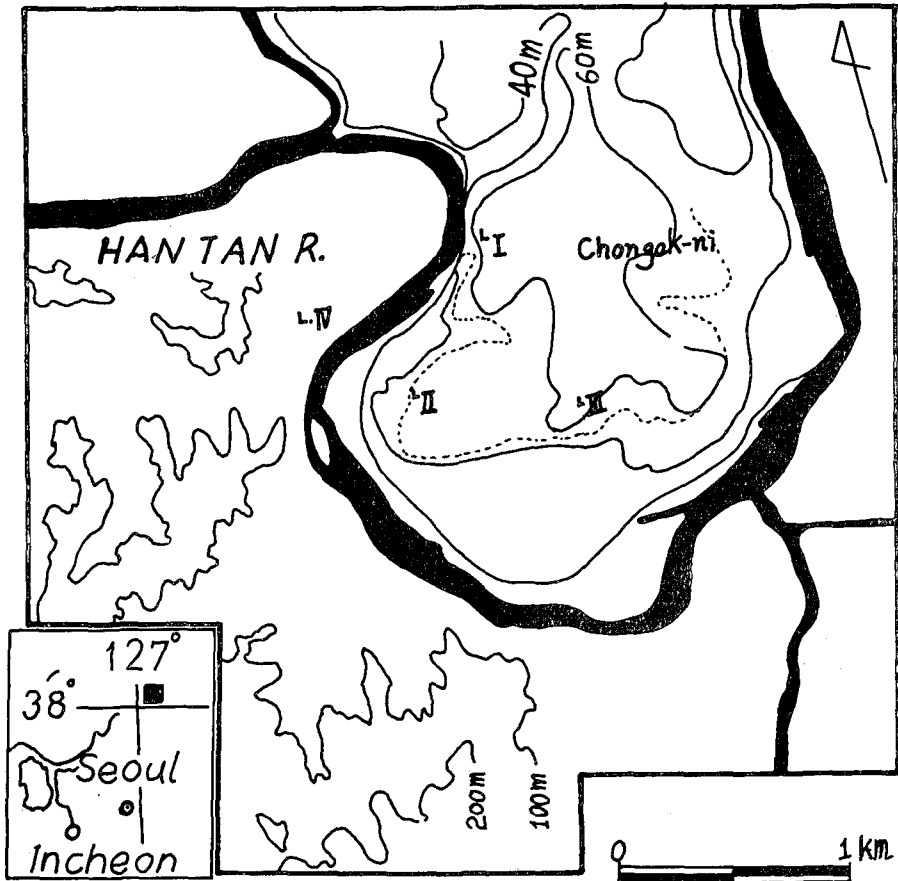
3) 貝塚爽平外 1977년 『日本舊石器時代の 考古學』 학생사.

4) 이응조 1980 “한국의 구석기문화연구사” 『한국선사문화의 연구』·金元龍 1981 “서론” 『한국구석기문화 연구』 참조.

5) H. Movins, Jr. 1978. “Southern and Eastern Asia; condusion” 『Early paleolithic in South and East Asia』 ed. F. Ikawa pp. 351-355.

두지 못하는 重要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학자에 의해 신랄히 비판받고 용어와 개념정의의 애매함과 分類法의 未發達이 가장 根本的인 문제이며 또한 이에 따른 文化 해석 方法의 취약성, 그리고 考古學外의 문제, 이 지역 地質學, 4期地質學의 未發達等이 舊石器研究의 制約이자 現狀인 것이다.⁶⁾

모비우스가 초퍼·초핑돌 文化圈을 제창한 이후 西歐學者에 依해서는 그들의 東아시아 구석기의 물이해로 말미암아 이러한 形態의 舊石器는 西歐의 개념으로 볼 때 보다 원시적인 형태의 지속으로 보는 것이어서 文化의 정체성을 계속 主張하고 있고 이 정체성을 밝히려는 次元에서 해석하려고 노



(表 1) <金谷里 地形圖>

6) L.G. Freeman, Jr, 1977.

"Paleolithic Archaeology and paleoanthropology in china" [Paleoanthropolog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ational Academy of Science.

H. Movins, Jr, 1978.

1983년 1월에 홍콩에서 "The Paleoenvironment of East Asia From the Mid-Tertiary"라는 제목으로 국제 학술회의가 열렸는데 이러한 기후·지질·생물·고고학적인 연구의 결과가 종합되는 기회가 많아져야 이 지역의 구석기연구는 L. Freeman이나 H. Movins의 지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⁷⁾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쏘갈리의 주먹도끼文化의 出現은 동아시아지역의 舊石器文化의 새로운 이해를 야기시킬 文化이며 이제까지의 막연한 추리에 대한 하나의 反證의 資料로 제공할 것이다.

전곡리유적은 서울의 동북방 60km지점 한탄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경 127° 03' 45", 북위 38° 01' 16"에 해당되는 지점<表-1>이며 해발 60M 내외의 넓은 臺地狀의 地形의 강쪽 끝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추가령지구대의 南西쪽 끝에 해당 되는데 철원·평강지역에서 분출되어 흘러 나왔다는 현무암이 臺地狀의 地形을 만들었는데 한탄강이 수직으로 깎으며 흐르고 있어서 유년기지형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유적은 남향하던 한탄강이 전곡읍을 U자형으로 감아돌아 다시 서행하여 임진강으로 흘러 가는데 이 U자형으로 구부러 지는 곳에 강에 면한 언덕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 전곡읍에서 남쪽으로 펼쳐진 이 유적은 붉은색의 점토층이 두텁게 현무암매지를 덮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유물은 이 적색점토층내에서 출토되고 있다. 발굴결과 층위는 점토층이하에 부분적으로 砂質로 된 층이 있는데 이 유물은 이 두개의 층위에서 출토된 것이며 점토층이 대단히 두꺼워(50~300cm) 지표채집의 유물은 대부분 적색점토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粘土層에 대해서는 Mindel-Riss 간빙기나 Riss빙하기의 어느 한 시기의 것이라고 처음 주장 되었는데⁸⁾ 이에 대해 여러 방향의 반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질학적 층위에 대해 확정된 이론은 제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점토퇴적물의 기원과 환경을 밝히는 것은 유적의 간접적인 연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유적의 형성과정을 알수 있는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 되는데 현재까지 지질·지형학적인 조사에 따르면 이 퇴적물은 이 지역의 화강편마암에서 유래된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퇴적물의 粒度·歪度 등의 분석에 의하면 水成퇴적일 可能性은 적으며 또한 外樣狀으로는 중국의 여러 구석기 유적에서 나타나는 적색 점토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 되지만 주위 지역에서 風成 또는 水成의 요인에 의해 이 지역에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⁹⁾

현재까지 전곡리유적이 5회에 걸친 발굴이 있었으나 보고서가 준비중에 있으므로 文化全體의 內容을 취급할 수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 쏘갈리文化의 가장 중요한 석기인 주먹도끼의 기술적인 제작과정을 복원하여 이와함께 형태에 의한 분류를 시도하여 앞으로 전개될 쏘갈리舊石器文化研究의 기본적 자료의 하나를 제공함과 동시에, 석기문화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으로서 대단히 制限的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東아시아지역구석기문화연구에서 가지는 학술적의미, 그리고 서구의 구석기문화와 비교하여 쏘갈리舊石器文化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 하는데 도움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석기분석의 대상은 주먹도끼이지만, 이 석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하

7) Movius, H.L. Jr. 1948, "The Lower Paleolithic Cultures of Southern and Eastern Asia" [Transaction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2. Oakley, K.P. 1964. [Frameworks for Dating Fossilmen] pp.217-219.

3. Pfeiffer, J.E. 1969. [The Emergence of Man] pp.129-132.

그러나 Movius는 1948년에 이러한 양상을 種族的인 文化 정체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을 1978년에 와서는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다.

8) 김원룡·정영화. 1978. "전곡리 아슐리안 양면해석기문화예보" [진단학보] 46, 47.

9) 이상만, 1981 "전곡리 구석기 유물출토지층의 지질학적조사연구" 未刊.

했는데 이 주먹도끼 석기문화가 東아시아지역내에서 發見된 同一系統의 石器群과의 連關性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서 유럽·아프리카 同種의 石器와 比較하여 全谷里文化의 性格에 대한 提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二. 주먹도끼의 개념과 관련석기집단 그리고 분석의 방법

전곡리에서 出土된 주먹도끼는 소위 아슐리안 바이페이스(Acheulean biface)라는 것으로서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의 전기구석기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인데 형태에 대해서는 이미 F. Bordes와 L. Gourham, Kleindinst, Leaky¹⁰⁾ 등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뾰족한 끝을 가진 것과 타원형인 것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¹¹⁾ 그 제작기법이나 형태, 용도 등을 종합해서 본다면 뚜렷이 구분해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G. Isaac은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주먹도끼의 개념에 대해 尖頭 혹은 타원형을 갖고 있으며 단면이 렌즈모양을 하고 있고 양면에 전체적으로 박편흔이 덮혀 있어야 하고 전체 또는 대부분의 주변에 예리한 날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어떤 文化이든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주먹도끼는 소수이며 부분적 특성만을 갖고 있거나 변형된 특성을 갖고 있는 수가 더 많은 것이다.¹²⁾

그리고 그 기능이 복합적이어서 많은 경우에 주먹도끼로 분류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차 전곡리문화의 분석에 사용 될 분류시스템의 하나로서 大型石器群에 속하는 석기중 주먹도끼와 유관한 석기로 일체를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비우스가 제시한 바의 주먹도끼의 발전과정과 초퍼나 초핑툴과의 관계에서 그 각 그룹의 석기개념이 명확히 구분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론을 제시함에 있어서 석기의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여 무리하게 이론을 도출시킨바 있는데 여러 학자에 의해 반발을 받고 있거나¹³⁾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에서 이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석기분류개념을 이지역 문화연구에

10) 이 석기의 분류에 관한 것은

- Bordes, F. 1961, 「Typologie dn paleolithique ancien et moyen」 Bordeaux. ed, Delmas.
- Leroi, G. A. 1966 「Terminologic de lu pierre et de los Leroi-Gourham」 et.
- Leaky, M.D. 1971, 「Olduvai Gorge, Vol 3; Excavation in Bed I, II, 1960-1963」
- Clark, J.D., Kleindinst, M.R. 1974. "The stone Age Cultural Sequence; terminology, typology and rau material." 「Kalambo Falls, prehistoric site」 Vol 2. ed by Clark, J.D.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분류체계는 연구의 대상에 따라 각각의 연구목적에 부합 되도록 제시된 것이어서 동일한 용어도 그 의미가 각각일 수가 있는데 Arthur J. Jelinek는 世界的인 共同연구를 위한 구석기 언어체계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A. Jelinek, 1977년)

11) Derek A. Roe, 1981,

「The Lower and Middle Palaeolithic Periods in Britain」 pp.152-161.

12) Isaac, Glynn LI. 1977 「Olorgesailie, Archeological Studies of a Middle Pleistocene Lake Basin in Kenya」 pp.116-145.

13) · Oakley, K: 1964. 「Frameworks For Dating Dating Fossil Man」 pp.244-245.

· Bordes, F. 1968 「The Old Stone Age」 pp.81-82.

· Larichev, V.E. 1976 "Discovery of handaxes in China and the problem of Local cultures of Lawer paleolith of East Asia" 「Le paléolithique inférieur-et Moyen en Inde, en Asie Central e, en Chine, et dans le Sud-East Asiatique」

제시코자 하는 것이다.

전곡리의 주먹도끼와 기타 亞類의 석기의 區分에 있어서 형태적인 구분의 선을 긋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무리하게 구분할 경우에 미래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먹도끼가 기능적으로 복잡한 석기라고 한다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동일한 크기의 석기들은 그 모양의 세련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의 평가를 받는 것이 文化的 기능적인 복원에 보다 더 접근하게 될 것이며 형태적인 세분과 등급은 이후에 작업에도 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보르드의 方法, 즉 형태적인 유형성을 파악하여 이에 기초한 형태표를 만들고 그 형태에 의해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석기군을 모아서 文化를 해석해 보려는 方向¹⁴⁾이 아니고 이와는 반대의 방법으로 즉 동일한 기능을 가진 석기를 모아서 이의 형태적인 변화를 분류해 봄으로써 일차적으로 당시 전곡리구석기인의 석기문화양상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적응의 다양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위에서 東아시아지역에 있어서 同類의 文化가 가지는 意味性和 相互관계에 對한 가능성을 提示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곡리주먹도끼류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性格에 注意한 후에 그 형태적인 다양성의 집합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석기의 기능과 형태에 있어서 아프리카·유럽의 同類의 文化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석기의 分析에 있어서 제 1차적인 작업은 그 석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을 파악하여 기록하는 일이다. 이것은 크기·제작방법·형태적 특징과 가지고 있는 기능을 모두 표현하여야 하는 것인데 석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제시된 (屬性)목록에 의해 각 분야별로 판정이 끝난 뒤에야 어떠한 속성을 공유하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앞으로 이 지역의 구석기연구에 있어서 누적될 유물의 분석을 전제하고 시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고고학적 文化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서양의 구석기 분류체계를 직접 적용하여 東아시아지역의 석기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서양구석기문화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용어와 분류체계가 어떤 특징의 석기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을 고려할 때 무리한 직접적용은 대상의 文化를 왜곡되게 전달하거나 개념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에 文化해석에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의 구석기관계논저에서도 보이고 있는 바이어서 정확한 개념의 제시와 보편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根本的으로 석기 이해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양구석기의 개념을 빌려와서 엄격히 규정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지만 이 지역의 文化의 이해에 가장 적절한 분류체계의 개발은 구석기연구에 선결되어야 할 問題이며 이러한 기초작업이 없이 文化의 性格이 규정되어 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못한 結果가 될 것이다. 이러한 點은 이미 여러 東西洋학자에 의해 심각히

· Ghoh, A.K. 1976, 'Pleistocene man his Cultures in Central, East, South and Southeast Asia, an appraisal,' op. cit.

· Yi, Seon-Bok and Clark, G.A. 1982; "Observations on the Lower paleolithic of North-East Asia" 未刊.

14) 藤本強 1976. "型式と分類" 「日本の旧石器文化」 Vol 5, pp.166-198.

지적되어 온 바이기도 하다.¹⁵⁾

석기의 분류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분류체제만을 가지고 각각의 기능적 형태적인 차이를 강조하려고 하는 경우에 우리는 석기가 실제 사용에 있어 대단히 한정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하고 폐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석기의 이용은 加工한 상태이든 하지 않은 상태이든지 간의 당시 인간에 의해 기능상 적합하면 사용하고 변형시켜 왔으리라고 생각되며 석기의 구성내용을 본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 양상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석기는 현재의 마지막단계의 석기의 형태분석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의 석기의 그 자신의 역사와 형태변용, 기능변용, 또는 기능의 다양성이 커다란 한정을 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석기의 변화과정은 이미 중간단계는 남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복원이 不可能한 것으로 看做될 수 밖에 없으나 마지막 단계에 남아 있는 흔적과 또는 다른 석기에 있어서 간취되는 中間段階를 통해서 設定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석기에 남아 있는 모든 屬性을 채집하여 도구의 제작과정의 복원, 석기 이용의 방식을 복원하는 것을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이용 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目的에 대응하였던 가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 제공 할 것이다. 설사 구석기문화연구 상호간에 사용 될 언어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各 地域間的 文化 양상의 比較研究를 綜合的인 次元에서 可能하게 만들 것이다.

이 논문에서 의도하는 바 주먹도끼의 分析에 있어서도 앞서 提示된 바의 各 屬性의 相對的 빈도 비교·屬性 相互間的 組合關係를 통해서 全谷里出土의 주먹도끼류석기의 性格을 밝혀내고 이것이 다른 지역의 주먹도끼의 성격과 비교 하려는 노력의 시발인 것이다.

서양의 주먹도끼의 분석은 크기와 크기의 諸元의 비율에 따른 形態비교를 통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세밀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一群의 아프리카구석기 학자에 의해서는 이러한 細分의 分類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大形의 석기군에 屬하고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류개념은 포괄적이어서 구석기의 다목적적용도를 고려해 볼 때 보다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石器의 屬性의 검출과 이의 組合의 방법에 따라서는 文化의 잠재력을 파악 하는데 대단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文化를 파악 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석기군만을 취급하는 것은 文化內容을 誤導할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全谷里出土의 도끼류의 석기들은 현재까지의 동아시아구석기문화 이해에 있어서 轉機를 마련해 줄 유물들이므로 이 石器群의 양상에 대한 파악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의 尖頭器나 주먹도끼, 또는 양면석기문화의 이해에 指標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未來의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지역 구석기문화의 이해에 대한 노력은 극히 시사적인 것이어 왔기 때문에 文化분석과 이해에 대한 체계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재의 상황이 결국 모비우스의 次元을 뛰어 넘지

15) ·Freeman Jr. L.G.: Ibid.

·Jalinec Jr, Arthur, 1977, "The Lower paleolithic; current evidence and interpretation," 「Annual Review in Anthropology, 1977」

·Fumiko, Ikawa, 1979, "東アジアの前期舊石器文化" 「月刊考古學ジャーナル」

못하였던 원인으로 생각 되는데 東아시아 구석기문화의 종합적 연구를 가능케 하는 한 방법적 시도로서 제시코자 하는 바이다.

三. 석기의 분석

全谷里에서 出土된 석기류에는 아슬리안형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가로날도끼(Cleaver), 찍개류(Chopper, chopping tool), 뾰족끝찍개(pick) 외에 긁개류(scraper), 등의 소형석기도 상당히 있다.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형석기군¹⁶⁾에 속하는 것 중에서 찍개류와 다각면원구(Polyhedral Spheroid), 석핵(Core), 大形 Chunk, Nodule 등을 제외한 주먹도끼, Cleaver, Pick 등의 석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대상의 석기군에서 보이는 양식분류의 상호간의 차이 그리고 각 양식이 아프리카·유럽 또는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보이는 문화적인 양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석기의 분류는 당연히 석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각 屬性을 검출하고 그 組合관계로 表現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은 많은 석기에서 나타나는 群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 고에서는 대상석기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 체제내에서 각 屬性의 組合이 가질 수 있는 意味가 限定되어 있으므로 이 屬性의 組合相에 의한 文化性格의 파악은 보류기로 하나 장차연구에 이용 될 자료로서 10가지의 屬性에 대한 각 석기의 모양을 기록해 두려한다. 석기의 수량이 증가하게 되어 각 屬性 또는 석기 양식간에 相對的인 의미가 수치로 표현될 수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수량에 있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각 석기집단간의 차이는 뚜렷하므로 드러난 屬性을 각 집단간에 대비하여 보고, 가능한 다른 지역 석기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석기의 특성

가. 크기(Dimension)

- a. 길이(l)
- b. 폭(W)
- c. 두께('t)
- d. 최대폭의 위치(a)
- e. 길이 2분지 1 되는 지점의 넓이(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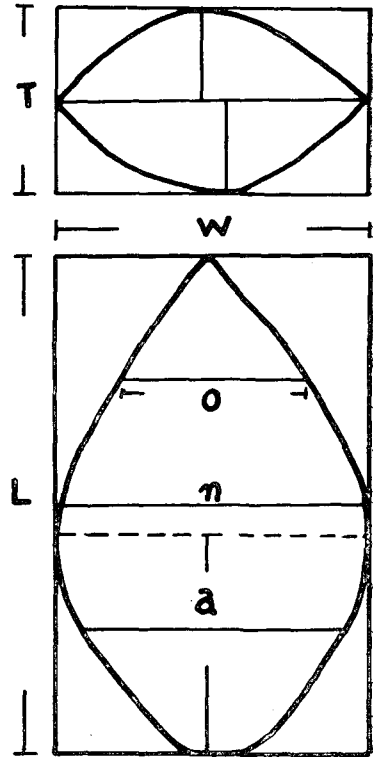
※ 끝에서 $\frac{1}{4}$ 되는 지점의 폭(q)

나. 형태(Form)

- (1) 평면(plan)

16) 대형석기군; heavy duty tool의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본 고에서는 주먹도끼류 또는 찍개류의 석기기에 속하겠는데 크기를 정하여 10cm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 석기류의 분류체계가 완전히 설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개괄적으로 분류하였음.

- a. 침두방형 (pointed rectangular)
 - b. 침두타원형 (pointed ovate)
 - c. 타원형 (ovate)
- (2) 몸통단면 (Section)
- a. 사변형 또는 사다리꼴 (rectangular or trapezoid)
 - b. 납작한 다각형 (flat)
 - c. 마름모
 - d. 타원형 (ovate)
- (3) 날의 단면 (section of pointed edge)
- a. 삼각형 (triangle)
 - b. 렌즈형 (lenticular)
 - c. 마름모
- (4) 날의 위치 (Location of edge)
- a. 끝 (distal end)
 - b. 측면 (side)
 - c. 끝과 측면 (distal end and sides)
 - d. 양측면 (both sides)
 - e. 전체주위 (all around)
- (5) 배면의 모양 (Shape of Ventral face)
- a. 박리흔 · 부분원석면 (flake scar with cortex)
 - b. 암석의 切離面 (joint surface of rock)
 - c. 원석면 (cortex) 또는 無加工 박리면 (unretouched detached scar)
 - d. 박리면 (flake scar)
- (6) 등면의 모양 (shape of dorsal face)
- a. 박면 · 부분원석면 (flake scar with cortex)
 - b. 암석의 절리면 (joint surface of rock)
 - c. 전체 원석면 또는 無加工 박리면 (cortex, unretouched detached scar)
 - d. 전체 박리면 (flake scar)
- (7) 1차 형태 (Primary Form)
- a. 박편 (flake)
 - b. 쪼개진 석재 (chunk splitted along the joint surface)
 - c. 타원형 川石 (oval cobble)
 - d. 납작한 川石 (flat cobble)
 - e. 원석확인 불능 (undefinable)



(8) 가공기법

- a. 부분양면가공(partly bifacial)
- b. 양면가공(bifacial)
- c. 단면가공(unifacial)

(9) 加工정도

- a. 1段加工(primary flaking)
- b. 2段加工(secondary flaking)
- c. 3段以上加工(more than secondary flaking)

(10) 잡는 부분가공(Butt Trimming)

- a. 無加工(unretouched or cortex)
- b. 한면가공(unifacially retouched)
- c. 부분양면가공(partly bifacially retouched)

10					
9					
8					
7					
6					
5					
4					
3					
2					
1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pick	pointed handaxe	oval handaxe	proto oval handaxe	proto pointed handaxe

〈表 2〉 石器의 種類別屬性分布

d. 양면가공(bifacially retouched)

(가) 침두형 주먹도끼(handaxe biface, pointed)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규질암이 가지고 있는 절리면을 따라 얇게 떼어 낸 板狀의 母型을 兩面으로 加工하여 尖頭狀의 주먹도끼를 제작한 것인데 아슐리안 창끝형주먹도끼(Lanceolate Handaxe)와 동일한 모양이다. 석기의 배부분(ventral face)과 등부분(dorsal face)가 거의 平行을 이루고 있고 배면이나 등면에 자연면 또는 切離面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며 尖頭를 특히 加工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동일한 아슐리안 창끝 형석기에 屬하고 있지만 석기의 뒷굽(butt) 부분이 두텁고 끝이 뾰족하다기 보다는 클리버와 같은 날을 가지고 있는데 대형천석에서 떼어낸 박편을 양면으로 加工하였다.

(나) 타원형 주먹도끼(handaxe biface, ovate)

평면이 타원형 또는 장타원형이며 뾰족한 끝을 가진 것이 아니고 주위를 따라 전체 또는 부분에 날을 다듬은 것으로 대체로 두가지 제작방법이 있다. 하나는 박편 또는 등근천석을 주위를 돌아가며 양면 加工하는 方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납작한 천석을 양 쪽 끝을 서로 회전하는 方向으로 깨뜨려 내어 제작하는 方法인데 이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석기의 양면에 자연면이 서로 대칭되는 위치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방법은 석기의 평면형태가 꼭 원형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고 마름모형 즉 方形에 가까운 것이 될 때도 있다.

(다) 원시형 尖頭—핸드액스(proto handaxe, pointed)

주먹도끼중에서 날만 가공하여 뾰족한 날을 만들고 몸통부위나 손잡이가 되는 지점은 그대로 남겨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소위 chellean 주먹도끼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날은 양면 또는 단면으로 가공 하였는데 서양학자들이 부르는 proto-handaxe 또는 pseudo handaxe에 해당되는 것인데 ㅅㅅㅅ에서 이것이 주먹도끼가 미발달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 많은 피크류의 석기와 함께 이러한 것과 동일 기능의 석기가 대량 요구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 원시타원형 주먹도끼(proto-biface, ovate)

타원형 또는 球形의 川石을 한 쪽 면에서 집중가공하여 한 쪽면은 완전히 자연면이 제거되고 또 다른 한 쪽은 자연면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모양의 석기인데 양쪽 끝만을 양면가공한 경우와 편면가공만 할 경우가 있다. 이것은 ㅅㅅㅅ에서 보이는 각면 球形石核에서 박리하는 技法, 즉 한 평면을 이용하여 주위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타격하여 박편을 떼내는 기법과 통하는 것이다.

이 모양의 석기는 몸통이 두텁고 주변에 둔한 각도의 날을 가지고 있다.

(마) 피 크(pick)

세분해서 표현 한다면 (1) 피크형 주먹도끼 (2) 피크로 구분 할수가 있겠는데 제작에 있어서는 크게 떼어 낸 박편을 집중적으로 편면 가공하여 제작한 것과 川石을 편면 또는 부분적으로 양면가공하여 만든 것이 있다. 몸통이 두텁고 길이가 길며 몸통부에 원석의 표면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 가로날도끼(Cleaver)

<表 3>

(1) 各種類別 길이의 分布

Pick	·	·	·	·	·	·	·	·	·
Po. hx.	·	·	·	·	·	·	·	·	·
Ov. hx.	·	·	·	·	·	·	·	·	·
Pr. Ov.	·	·	·	·	·	·	·	·	·
Pr. Po.									
Af. hx	△△	·	·	·	·	·	·	·	·
	11		15 _{cm}						20

X Kalambo
 o Isimilia
 · other
 △ Orangesalie
 A Swanscomb

(2) L/W 길이 ÷ 最大幅 × 100의 값의 分布

Pick		·	·	·	·	·	·	·	·
Po. hx.	·		·	·	·	·	·	·	·
Ov. hx.	·	·	·	·	·	·	·	·	·
Pr. Po.	·	·	·	·	·	·	·	·	·
Pr. Po									
	125	145	165	185	205				

(3) W/T 最大幅 ÷ 最大두께 × 100의 값의 分布

Pick	·	·	·	·	·	·	·	·	·
Po. hx	·	·	·	·	·	·	·	·	·
Ov. hx		·	·	·	·	·	·	·	·
Pr. Ov.	·	·	·	·	·	·	·	·	·
Pr. Po.									
	105	125	145	165	185				

(4) W/n 最大値幅÷길이 2分之1地點의 幅×100의 값의 分布

Pick	---				
Po. hx	:
Ov. hx	:::	.						
Pr. Ov						
Pr. Po.	.	.		.				
	110	130	150	170	190			

(5) W/O 最大値幅÷4分之3地點의 幅×100의 값

Pick
Po. hx			:
Ov. hx						
Pr. Ov.	...							
Pr. Po.		.	.		.			
	110	130	150	170	190	210		

대칭형을 이루고 가로직선날을 가지고 있으며 넓은 박편(Side Flake)에 제작한 것들이 代表的이며 대단히 큰 것들도 존재하는 반면 소형의 가로직선날도 있다.

전곡리출토 주먹도끼류는 그 크기 분포의 범위가 각 석기형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表 3)

우선 길이의 범위를 볼 때 전형적 尖頭주먹도끼는 11cm~13cm 内外이며 이것은 타원형주먹도끼에서도 이 범위에 속하는데 피크류석기는 이 보다 커서 15cm~17.5cm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침두형석기 중에는 이 보다 큰 것도 다수 있다. 원시형타원형주먹도끼는 역시 11~13cm에 위치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定型化한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원시형침두형주먹도끼는 주먹도끼의 定型化한 石器보다도 큰 위치에 있다. 이러한 크기 분포는 대체로 東아프리카 전기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의 크기분포 보다 작은 편에 속하는 것이다. (表 3) 주먹도끼의 평균치가 이 범위에 속하는 유적들으로는 東아프리카 전기구석기의 Olduvai Gorge TK 상층, 중기 빙하시대의 Olorgesailie LSS·유럽의 Swanscomb, Hoxne 등의 것들이 있다. 그러나 東아프리카에서 出

土된 주먹도끼들은 대체로 14~19cm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Isaac 에 따르면 南아프리카·北아프리카, 유럽 지역으로 갈수록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길이와 폭의 비교에서는 길이가 폭의 2배가 넘는 것은 극히 드물고 尖頭形주먹도끼의 경우에 1.5~6배이며 타원형주먹도끼의 경우에는 1.3배 내외이다. 폭과 두께의 관계는 침두형주먹도끼에서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납작한 母型을 선택한 結果라고 생각된다. 全谷里에서는 전면을 양면으로 연속적으로 여러번 加工하여 제작한 주먹도끼가 없으며 대개 母型の 表皮가 殘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은 두께와 폭의 비례에 있어서 아프리카나 유럽의 아슐리안바이페이스에 비해서 두터워지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加工技術의 문제라기 보다는 석재에 따르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원시형 타원형주먹도끼의 경우에는 그 比例가 거의 1에 가깝다. 最大幅의 위치에서는 타원형석기와 침두형의 석기가 약간의 변화만을 보이는 것은 尖頭形의 경우에도 길이와 폭의 비가 앞서 언급한 바대로 크지 않음에 따르는 것이고 석기가공에 있어서 母型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가공을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두형과 타원형의 차이는 最大幅과 上端幅(0)의 관계에서 뚜렷이 구분 되는데 타원형이 110~130 임에 비해 침두형은 130 이상의 범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피크의 경우에는 그 尖頭상의 특징을 제외하고는 원석의 선택이라는 점만이 문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형태분석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尖頭形의 기능의 가진 石器는 全谷里石器구성상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四. 全谷里 주먹도끼류 석기와 東아시아 지역의 구석기문화

全谷里에서 이러한 집단의 석기가 대량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Movius에 의해 주장되기 시작하여 Pfeiffer 등의 학자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받아 드렸던 문화이론¹⁷⁾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오던 많은 학자들의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임에 틀림 없다. 그간 많은 학자들은 파지타니안(padjitanian) 문화가 모비우스가 제시한 바의 Chopper-Chopping tool 이 전통의 文化로 규정 짓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라고 主張하고 모비우스가 취급한 文化의 內容에 보이는 양면가공법 주먹도끼, 클리버의 존재를 상대적으로 강조 하려고 해 왔다. 특히 Ikawa와 Larichev의 발언은 격한 것으로서 Larichev는 중국지역의 구석기문화는 서양의 주먹도끼文化와 同質의 次元에서 볼 수 있다고도 하였는데 물론 이러한 발언은 Yalinek의 예리하고도 침착한 주의¹⁸⁾를 받게 되었지만 그간 모비우스의 편견에 대한 東아시아 구석기학자들의 노기어린 음성에 부응하듯이 中國을 비롯하여 東아시아 각지에서 주먹도끼가 많이 發見되고 양면가공의 석기문화가 그 수를 더해 오고 있었던 실정이다. 中國의 藍田유적의 Cheullean系·Acheulean이라고 보는 尖狀器¹⁹⁾, 丁村유적의 많은 양면석기와 주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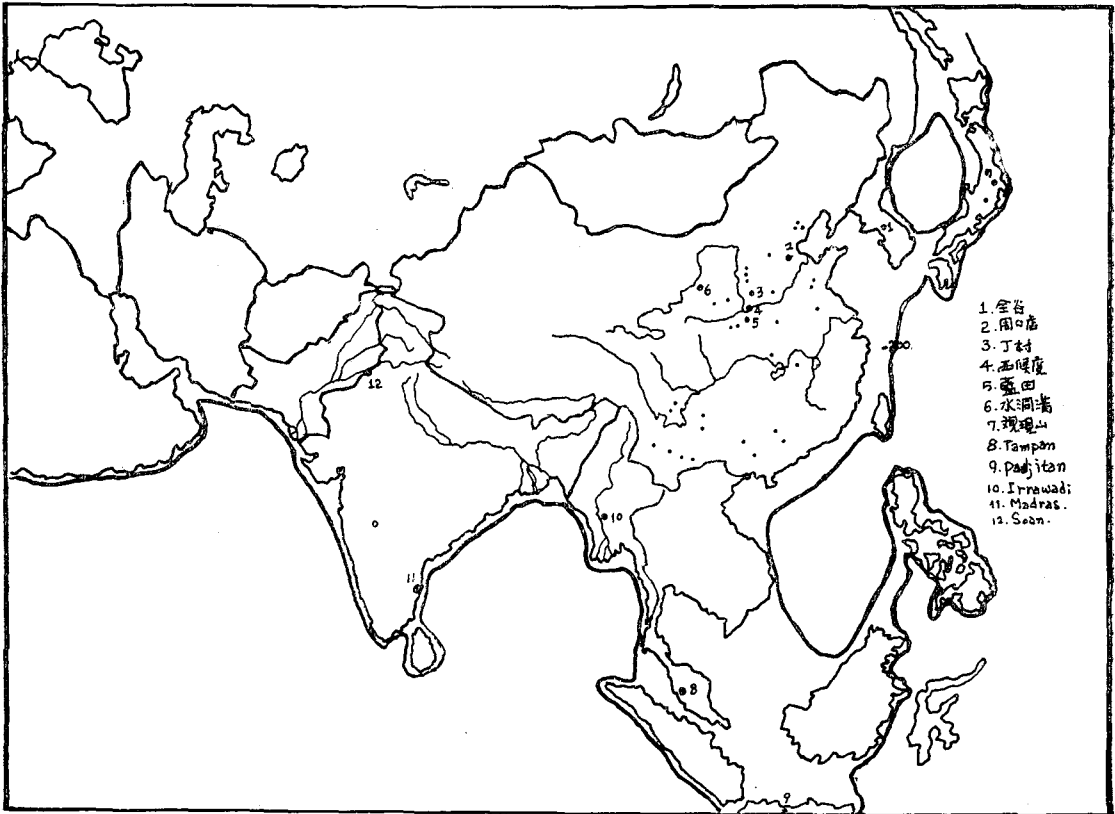
17) 모비우스; 1948, Ibid.

18) Jalinek, A, 1977, Ibid.

19) 戴尔儉: 1966, 2. "陝西藍田公王嶺及其附近的石器" 「古脊椎動物與古人類」

끼류²⁰⁾ 匱河유적에서 발견된 주먹도끼(11.5×17.7×6.2cm) 이외에도 최근에는 중앙아시아지방에서 20만년전의 주먹도끼문화가 발견 되었고²¹⁾ 또한 베트남등지에서도 주먹도끼문화가 발견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²²⁾ 주일본에서도 최근 주먹도끼가 1點 새로이 발견되어 權現山の 것과 함께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나 日本에서의 獨自發生論이 대두되고 있다.²³⁾

특히 中國의 대형 尖頭器文化는 中國 舊石器文化의 2大 主流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中國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西候度를 頂點으로 하여 두 갈래의 文化로 나뉘어서 하나는 匱河—藍田—丁村으로 연결되는 大形尖頭器文化이며 다른 하나는 周口店 1地點—峙峪文化로 연결되는 박편—세석기문화로 보고 있다.²⁴⁾



(表 4) 重要 古석기 유적 분포

20) 裴文中等編, 1958, 「山西襄汾縣丁村舊石器時代遺址發掘報告」中國科學院古脊椎動物研究所.

21) Davis, R.S. Ranov, V.A. & Dodonov, AE, 1980, 'Early Man in Soviet Central Asia' 『Scientific American』 Vol. 243, No. 6.

22) 科學朝日, 1980. 2, pp. 66.

23) 小野田 正樹・外山泰久, 1982. 「東アジアにおける「hand-axe」をめぐる 2・3の問題」 『考古學雜誌』 67-4.

24) Chia, Lanpo 1978, Hsihoutu, pp. 71-76.

Chia, Lanpo 1982, “中國における 舊石器時代 研究の現狀” 『古代文化』

중국에는 화북의 황화유역일대에 중요한 유적이 밀집되어 있다(表 4-지도) 이 지역과 한반도와
의 관계는 이 당시 해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내려가 있어서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²⁵⁾
만일 이 지역이 육지로 연결 되었다고 본다면 전곡의 문화는 中國의 文化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국구석기의 발전과정에 의거해서 전곡리문화를 이해해 본다면 두갈래의 문화
계통중에서 匭河—藍田—丁村계통은 석기문화에서 양면으로 가공한 대형의 첨상기의 존재와 양면으
로 가공한 여러 모양의 석기의 존재는 전곡리유적과 석기의 구성요소가 비슷한 감을 주고 있고 주
먹도끼이외에 다각면원구등의 석기가 공동으로 존재하는 것 역시 눈에 띄는 점일 것이다. 특히 중
국학자가 강조하는 大形첨상기에서는 “西候度”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尖頭만을 가공하여 사용한
예는²⁶⁾ 전곡리의 피크류의 석기중에서 尖頭만을 가공하고 두터운 몸통부를 전체 자연면으로 두고 있
는 여러 모양의 석기로 생각해 하는 바이다. 중국의 경우 중기빙하기에 속한다는 匭河, 藍田의 경
우에는 소수의 바이페이스가 出土 되었으나 丁村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바이페이스유물이 출토됨을
알 수 있다. 丁村의 이것은 바이페이스의 기법을 알고 있던 중국의 구석기인이 재료의 제약 때문에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가 후기빙하기시대에 와서 양질의 재료를 발견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생각
하고 있다. 그런데 전곡리의 石器의 年代에 대해서는 이 文化가 놓여 있는 암반인 현무암의 연대를
측정해 본 결과 상한이 대략 27萬年으로 나왔다.²⁷⁾

이 연대에 대해서는 그 연대측정방법 자체가 가진 한계점이 있으나 Clark교수는 지형적인 변화
와 층위에 유념하여 중기빙하기말에 해당 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데²⁸⁾ 地形의 침식상황으로
볼 때 氷河期 間氷期の 사이클을 지난 것은 틀림 없다고 보여진다.

전곡리석기문화가 中國의 석기문화와 보이는 이러한 관계외에 전곡리에서는 유럽·아프리카의 전
형적인 주먹도끼가 出土 되었다는 점과 또한 전형적 대칭형의 클리버(cleaver)의 존재는 이 文化的
東아시아적 기원에 대해 주저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pick類 중에 보이는 몸통이 두텁고 자연면이
많이 남아 있으며 박편을 큼직하게 베어 낸 pick類는 아프리카의 전기 아슐리안 末期의 표상적인
석기인 Sangoan Pick와 대단히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²⁹⁾

이러한 종류의 석기는 아르메니아 지방의 Satani Dar 지방에서도 보이고 있고, 마드라스의 Gidd-
ler 유적에서도 보이는 바이다. 클리버의 존재는 유럽 아슐리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의 특
징적인 석기인데 인도지방에서는 이러한 류의 클리버가 출토 되는데 아프리카文化와의 관련설의 중
요한 자료로 提示되고 있다. 물론 中國의 周口店 15지점에서 出土된 일련의 박편날 도끼들도 클리
버로 주장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³⁰⁾

25) Chard, C.S. 1974. 『Northeast Asian Prehistory』 pp. 44-46.

26) 賈蘭坡 1978, Ibid,

27) 高柳昌弘, 1981. “全谷里岩石年代測定” 未刊.

28) Clark, J.D. 1982, “주한구석기유적답사” 『文化財』

29) Bae, kidong, 1980. 『전곡리출토 핸드액스의 비교분석적연구』 M.A. Thesis.
Clark, J.D. 1982, Ibid.

30) Coles, J.M & Higgs, E.S. 1969.

『The Archaeology of Man』 p. 375.

동양학자에 의해서도 주먹도끼가 서양으로 부터 전파되어 온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³¹⁾ 또한 이점에 대해 석기의 제작상의 方向의 차이를 들어 반박하고 있기도 한다. 전파론은 현재의 동아시아에 주먹도끼문화의 이해에 문제로서는 시기상조의 문제로 보이지만 석기의 다름은 方向이 전파문제의 이해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이 전파의 가능성에 대한 것은 장차 연구의 진행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거나 우선 이 지역에 있어서 석기이해의 공통의 언어를 개발하여 문화를 종합하는 과정이 시급한 것이다.

현재의 단계에 있어서 전곡리구석기 문화의 기원이나 상세한 성격은 앞으로의 연구의 진행에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아슐리안文化의 지역적상황이 갖는 의미는 모비우스가 제시한 바의 문화의 기원과 그에 따른 인종적 기원의 차이에서 오는 아프리카 유럽과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주체의 차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세계의 모든 전기구석기문화가 동아프리카 기원인지 또는 다원적인가의 문제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문제는 제삼 강조한바 이 지역이 석기문화에 대한 충분한 음미 이후에 해결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결론으로서 전곡리에서 출토된 주먹도끼류의 석기는

가. 전형적 유럽, 아프리카형 아슐리안 주먹도끼, 클리버의 존재

나. 尖頭의 모양과 타원형의 모양이 공존하며

다. 석재에서 오는 제약에 의해 서양 아프리카보다 형태가 세련되지 못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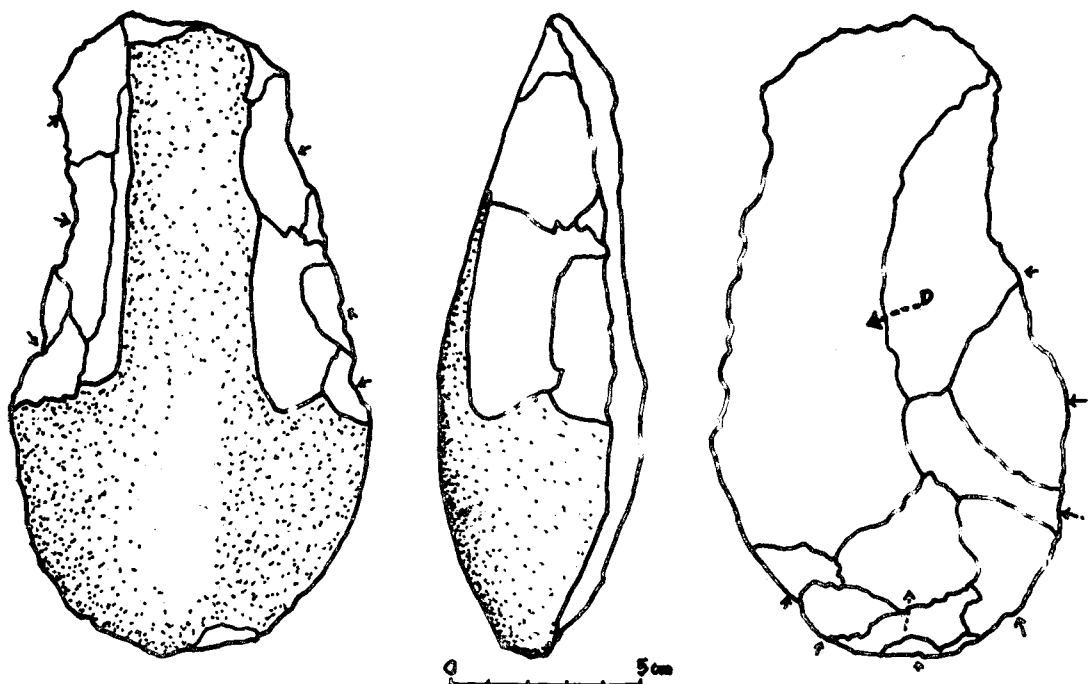
라. 피크류, 원시형주먹도끼가 함께 출토되고 피크 중에는 中國의 침상기와 기능과 모양에 있어서 동일한 것들이 다수 있으며 또한 一群의 침상기는 Sangoan 文化의 것을 연상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elinek 等の 지적처럼 이 지역에 있어서 주먹도끼류가 전체 유물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은 아프리카, 유럽의 그것에 비하여 크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비우스가 주장하는 바의 석질의 분량이나 인종적인 열등에 기인하여 양면날 주먹도끼의 부재라는 이론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東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주먹도끼文化가 보편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문화가 이곳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의 문제가 앞으로 구체적인 문화이론의 숙제이며 또한 전곡리의 양면날 주먹도끼들의 출현은 이 지역에서 보다 동질의 문화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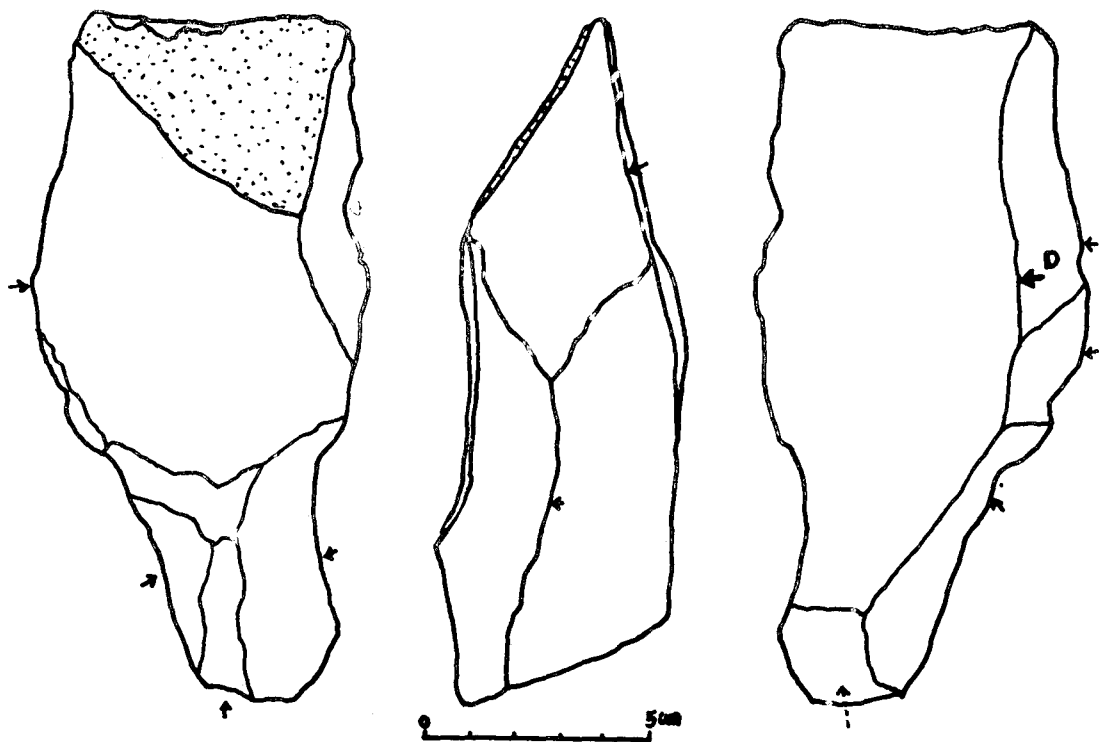
문화의 이해에 있어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 하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지만 주먹도끼, 아슐리안바이페이스의 동아시아지역 출현은 그 자체 이 석기의 형태와 제작방법이 가지는 문화사적의미가 지대하여 현재까지 그 이론에 대한 논쟁이 있음에 전체문화연구에 앞서 제시하는 바이며 본 연구는 앞으로 있을 전곡리구석기문화성격의 한 부분의 표현으로 생각되어 질 것이다.

31) 芹澤長介 外, 1979. 「どこからもたかハンドアシクス文化」『科學朝日』39-1, pp.39-45.

芥澤長介・渡邊直徑・江坂輝彌・1980. 『科學朝日』40-2, pp.6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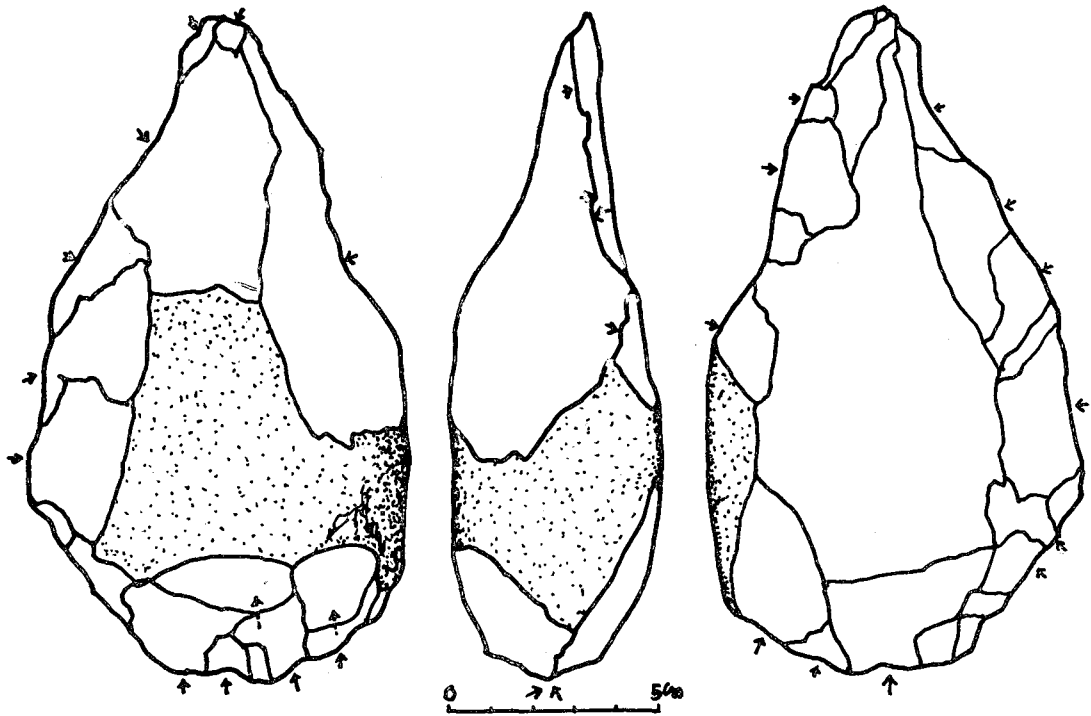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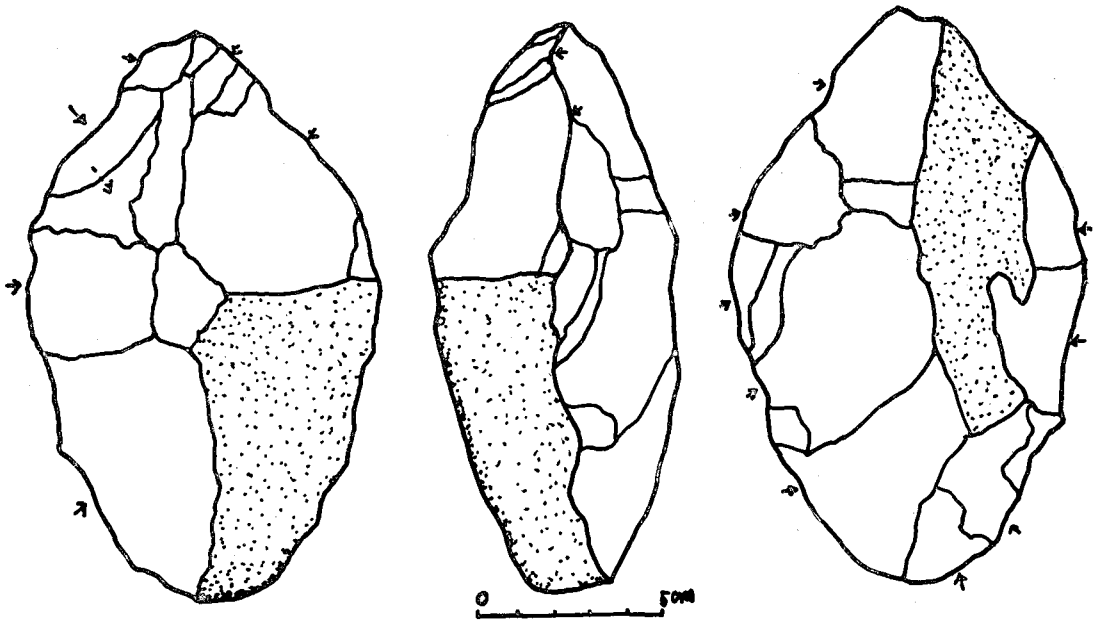


②

圖版 II. 아슬리안型 클리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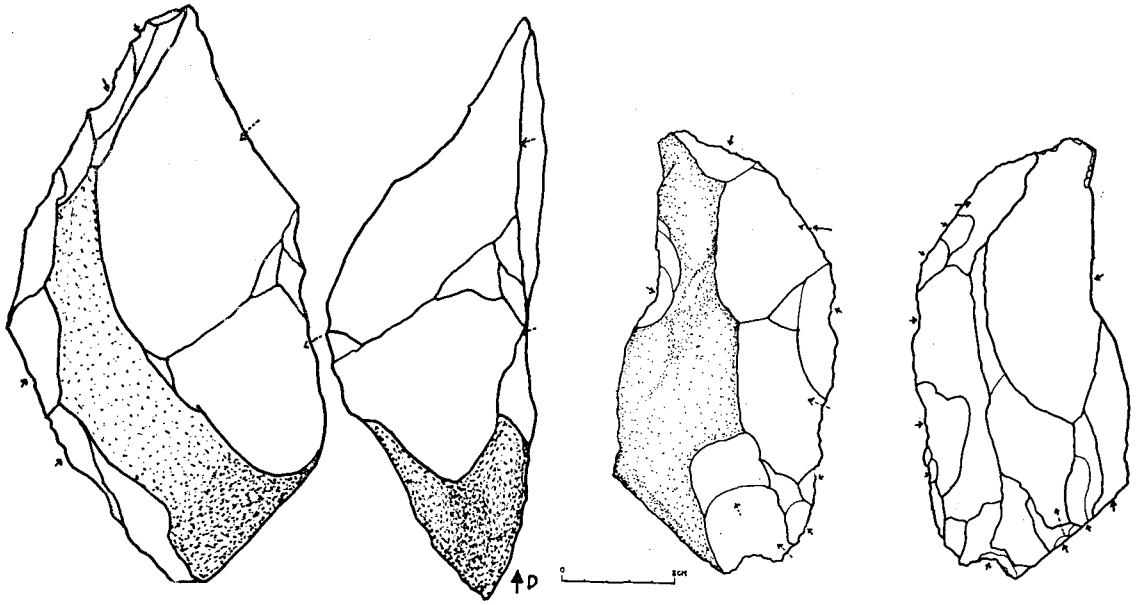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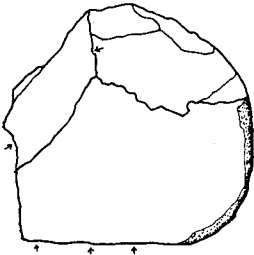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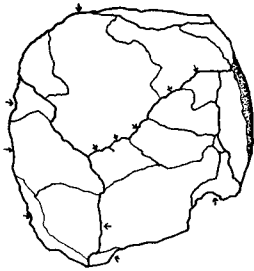
②

圖版 I. 아술리안型 주먹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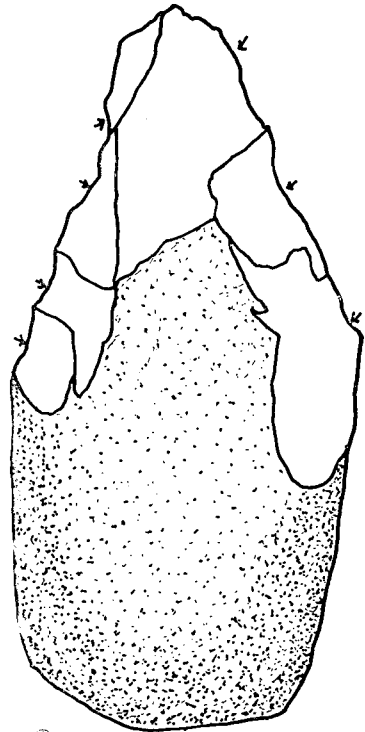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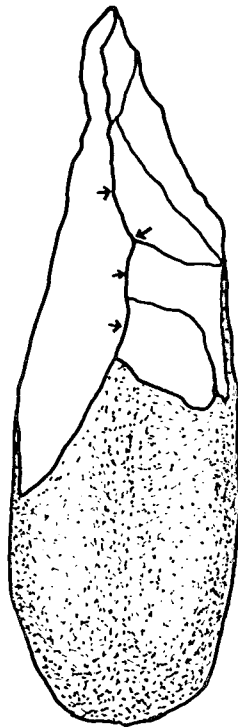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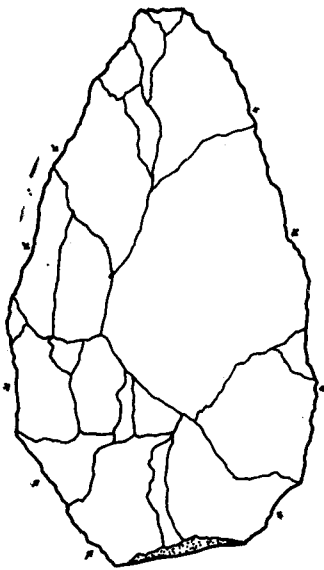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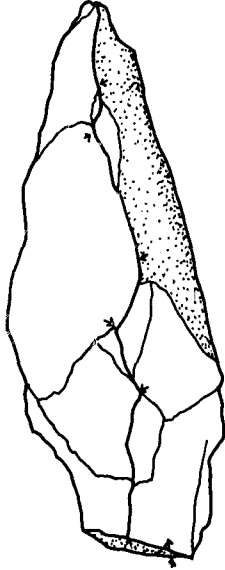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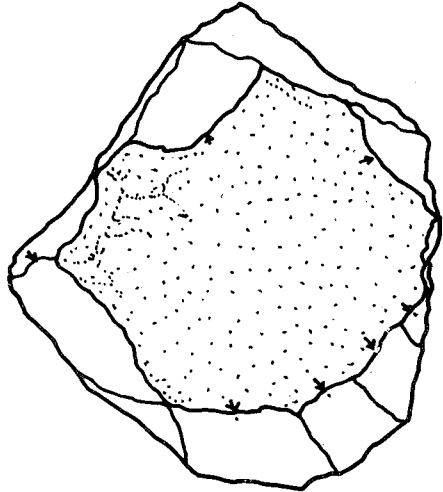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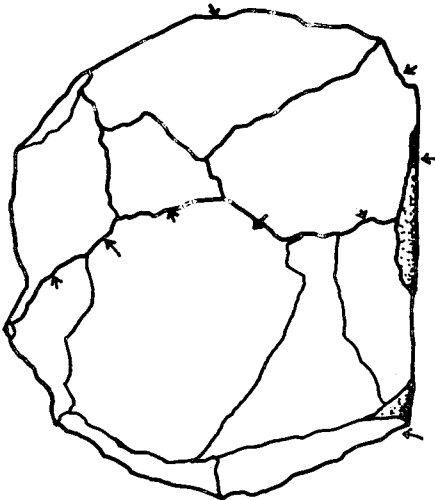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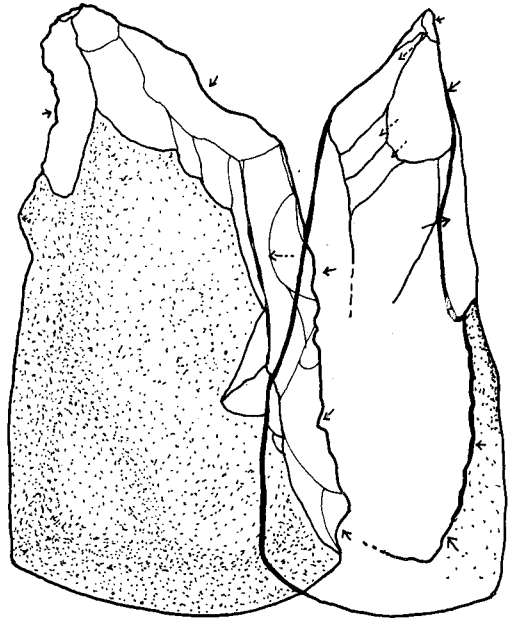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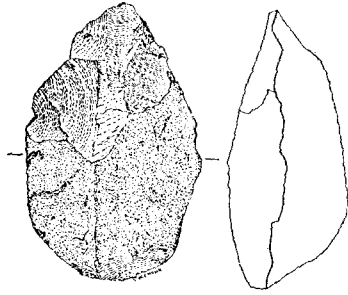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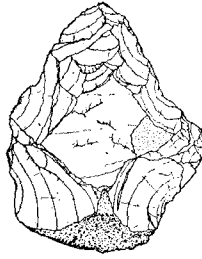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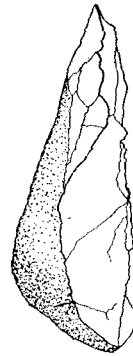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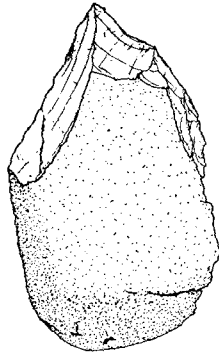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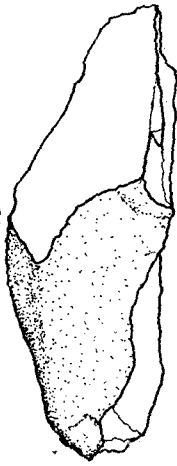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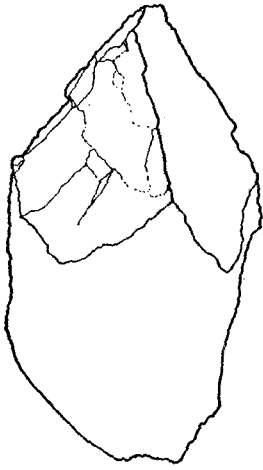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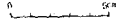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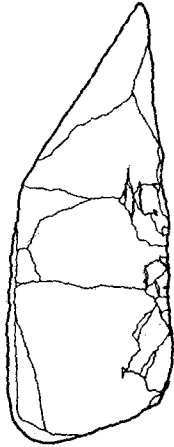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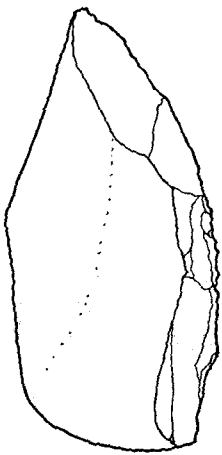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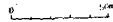
①



②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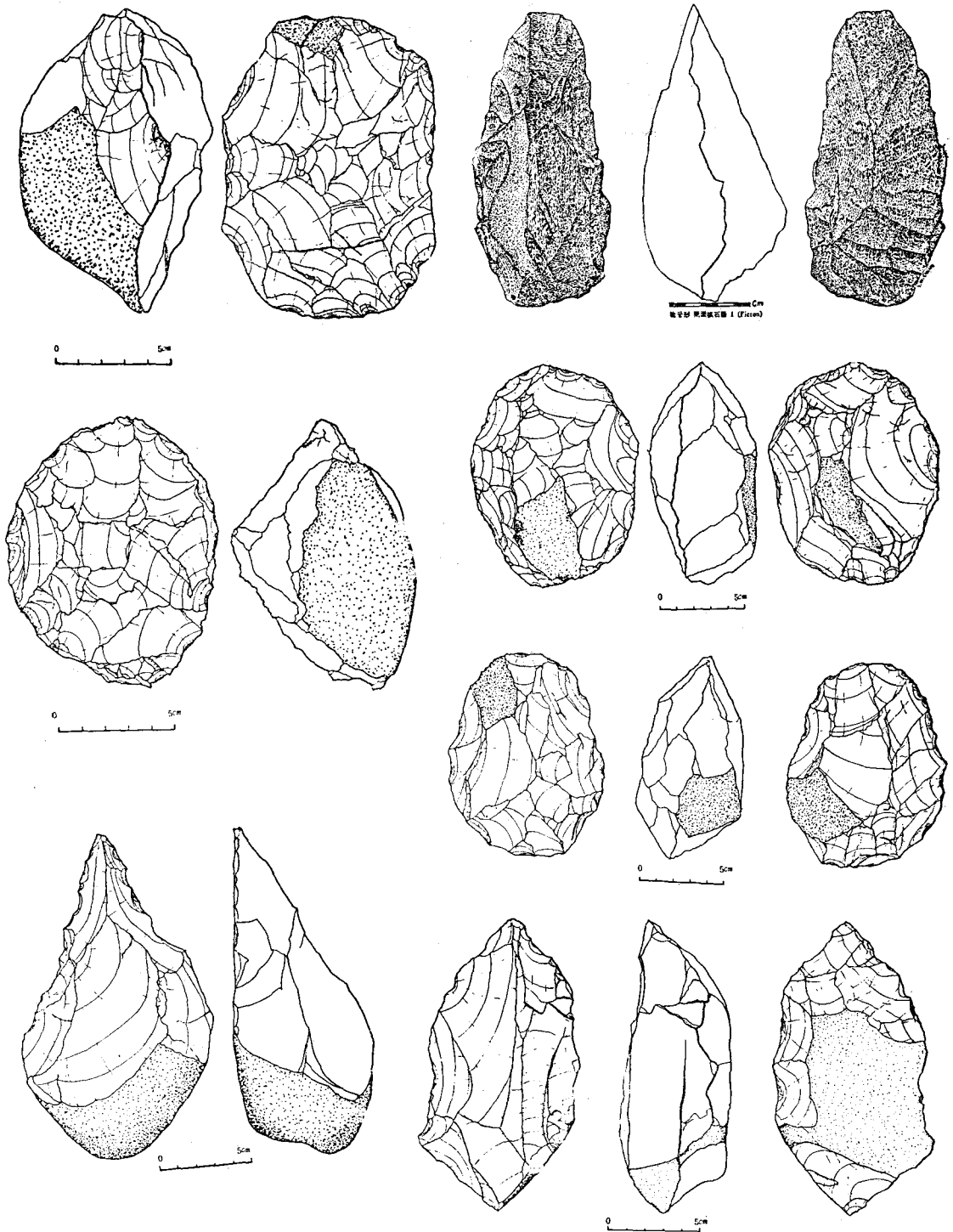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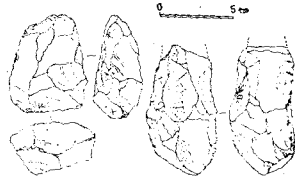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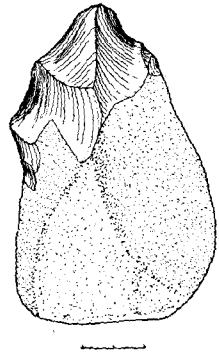
⑤



⑥







佐野の石器 (美濃、三浦、玉川、河原)

